

온몸에 핫팩·워머...의료진, 천막서 ‘추위와 전쟁’

르포 / 광주시청 임시선별검사소 가보니

“보온 기능 없는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발이 얼고 통통 붓지만 코로나 확산예방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최근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여파로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의 대기줄이 끊이지 늘어서 있었다. 운영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훨씬 전부터 길게 늘어선 줄로 대기시간은 1시간을 훌쩍 넘겼다.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 천막과 유도선 줄이 연신 떨릴 정도로 바람마저 매섭게 몰아치면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시민들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에 떨었다. 시민들은 손에 입김을 불며 비비는 모습, 후드를 뒤집어쓰고 몸을 한껏 움츠린 채 대기줄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아내의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시민 고모씨(36)는 “땀 뿜던 광장에 이렇게 할 바람 가립막도 없이 벌벌 떨며 기다렸다”면서 “몸이 약한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였다. 대기자들이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진과 봉사자 등 3~4명은 광장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발 통통 부어 온풍기·전기난로 추위 감당 안돼 밀려오는 검사자에 쉬지도 못해 2차 감염 차단 방역에도 분주 봉사자 “방한화 공급해 줬으면”

오후 10시 검사소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8시간 가까이 앉지도 못한 채 시민들을 안내한다. 한 직원은 강추위에 갈라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확성기에 대고 “코로나 검사 받으실 분은 이리로 오세요”라며 안내를 반복했다.

안내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강성씨(54)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증식을 위해 사망감으로 봉사하고 있다”면서 “통제와 질서유지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이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방한화 보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검사소 내부도 냉골이긴 마찬가지다. 의료진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방호복 속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두꺼운 옷을 껴입은 채 목에 워머까지 돌렸다. 개인당 전기난로가 하나씩 제공되고 온풍기도 설치돼 있지만, 천막은 겨우 바람만 막아주는 데다 검사자가 오가면서 사실상 계속 열려있는 문

때문에 추위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한 의료진은 “의자가 높아 상자 위에 난로를 올려 발높이에 맞추곤 한다”면서 “피부가 트고 콧물이 흐르는 건 일상이다. 감기도 달고 산다”고 토로했다.

의료진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검사자에 추위도 잊은 채 쉴 새 없이 손을 놀렸다. 한 사람 검사가 끝날 때마다 곧바로 기계적으로 소독작업을 거친 후 비닐장갑을 교체했다. 물티슈로 연신 책상을 닦는 등 위생과 청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의료진 최모씨는 “요즘 검사자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검사소에서 또다른 2차 감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시설·의료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탓에 어린이와 노약자도 많이 보였다. 다행히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 검사 창구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자녀와 함께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 강모씨(44)는 “하루종일 코로나 검사에 바쁜 의료진들과 밖에서 추위에 떠는 시민들을 보면 안쓰럽다”면서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접종도 완료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27일 첫 운영을 시작한 시청 검사소에서는 지난 14일 기준 33만 3,000건의 검체를 채취했다.

/오선우·민찬기 기자



17일 오후 광주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광주·전남 확진자 첫 400명대

오미크론 확산세...전남 서부권 중심 빠르게 확산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광주·전남에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주 동안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오미크론은 33%였다.

오미크론은 2주 차에 41%, 3주 차에는 49%였지만 4주 차(1월 8~14일)에는 80%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건수는 최근 1주일 동안 217건이 늘어 모두 571건이 됐다.

오미크론 확인 건수가 늘어나는 동안 확진자도 급증했다.

확진자 추이는 1주차 460명, 2주차 556명, 3주차 571명에서 4주차 1,178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일주일(10~16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89명으로 직전 주(3~9일) 89명보다 배 이상 많다. 이달 들어 광주 확진자는 2,172명으로 월간 최대 확진자를 기록한 지난해 12월(1,804명)을 이미 훨씬 넘어섰다.

목포와 무안 등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전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47명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한 결과 105건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322명(광주

158명·전남 164명)→ 324명(광주 188명·전남 136명)→ 357명(광주 224명·전남 133명)→ 363명(광주 208명·전남 155명)→ 354명(광주 185명·전남 169명) 등 연일 3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6일에는 광주 237명, 전남 166명 등 403명으로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

전남에서는 최근 코로나 주간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높아졌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목포, 영암, 무안, 나주 등 4개 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명으로 강화하는 위험요인별 맞춤형 핀셋방역 정책을 시행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북 등 호남지역 전체가 오미크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전남은 서남권 지역이 오미크론이 이미 퍼져있어 더욱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이용섭 “정몽규 회장 사퇴 능사 아니다”

“사고 수습·책임있는 조치” 촉구

이용섭 광주시장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회장직을 사퇴에 대해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퇴가 능사 아니다, 책임지는 모습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 책임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며 ▲실종자 구조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 ▲피해 가족과 상인,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고 아파트를 비롯해 건설 중인 모든 아파트에 대한 엄정한 안전진단을 통해 입주예정자는



작심 비판했다. 앞서 이 시장은 붕괴 사고 이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공사 중지에도 이어 전면 재시공 검토, 광주시 발주사업 배제 등 여러 초강수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조기철 기자

대촌농협 정관 변경 시도 ‘꿈수’ 반발

>>> 6면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주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으로
평소 살던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돌봄전화 ☎062-350-4000